

# 쓰는 작가는 많은데 읽히는 작품이 드물다

## 창작동화 위기론에 탈출구는 없는가...작가들 개혁 통해 새 활로 모색해야

김용희

아동문학평론가

최근 우리사회 일각에서 변화와 개혁의 소리가 드높다. 인격적으로 존경받아야 할 신성한 교육계와 종교계에까지 구석구석 개혁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자성의 소리도 자주 들린다. 그런 가운데 요즘엔 과거 아동문화운동의 중심이 되어왔던 동화문학의 인기가 끝없이 추락하면서 동화작가들이 자주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른다.

이제 창작동화는 아동문화의 왕자 자리를 유지하지 못한다. 창작동화와 동화작가들은 아동문화 전반에 과거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확고한 자기정체성이나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비전을 제시해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달라진 환경 속에서도 동화작가들은 새로운 소재 발굴에 소홀히 하면서 대신 작가들의 문학적 전략을 상업주의에 결탁해 오히려 저질적인 아동문화의 양산에 일조를 했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그래서 아동문학이 달라지려면 아동문학가부터 개혁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호소력을 갖게 되었는지 모른다.

### 창작동화의 문화적 전략

얼마전 어느 아동문학가 단체에서 발행된 회보에 자녀를 둔 한 주부가 기고한 「신춘문예 당선 동시를 읽고」라는 건의서의 전문이 게재된 일이 있었다. 신춘문예 당선 동시라면 그해의 응모작 중 가장 뛰어난 작품이 뽑혀야 하는데 모 일간지에 발표된 당선 동시는 감동은 물론 새로운 이해나 신선한 감각도 없이 상투적인 발상으로 치졸하기 짝이 없었다는 비난의 글이다. 그 주부는 이런 작품이 당선된 데 대해 나름대로 요인을 지적해 내고 있다. 하나는 우리사회가 아직도 아동문학을 경시하고 있는 풍조를 반영한 아동문학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동시집 한 권도 낸 바 없는 동화작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관계기관의 무성의한 태도와 그것을 수락한 작가의 안일한 작가정신이다. 작품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산문과 운문 장르의 구분을 전혀 고려치 않고 정실에 얽혀 심사위원을 내정하고 수락하는 일은 곧 아동문학을 업신여기는 일이며 또 어린이를 업신여기는 일일 것이다. 오죽 답답했으면 자녀를 둔 어머니가 '어린이에게 양질의 아동문학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생각'과 오직 '어린이들이 향기 짙은 아동문학을 접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마음에서 그 건의서를 낸다고 했겠는가. 성인 문학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아동문학에서는 예사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부끄럽기만 하다.

아동문학의 이와 같은 증증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만은 아니지만, 분명 한 주부에 의해 제기된 아동문학의 일그러진 모습은 실추된 신춘문예의 권위보다 변화와 개혁의 시대 속에도 아동문학만은 너무도 변화하지 않은 구태를 새삼 확인시켜 준 일례일 터이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날 전자매체의 발달로 아이들의 독서성향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소위 후기산업사회라고 일컫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동화문학이 어린이들의 교양을 전적으로 담당하며 당당히 누려왔던 자리를 비문학 교양·오락물들에게 양보하고 이제 뒷전에 앉아서 구겨진 자존심을 세워야 하는 형편이 되었다.

언제부터가 우리 아이들은 골목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빼앗기고, 학교갔다 돌아오는 시간에 맞추어 학원가방을 챙겨두고 학원엘 가야 하는 바쁜 일과표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그러면서도 이원수나 강소천의 이름은 몰라도 「드래곤 볼」이나 「슈퍼보드」의 줄거리는 줄줄 외워댄다. 시간만 나면 TV 앞에 앉아 만화영화 「통키」나 「무적 파워레인저」와 같은 저급한 비디오를 보며 즐기는가 하면, 가지마 눈을 하고 전자오락과 컴퓨터에 매달린다. 또 친구 집에 놀러 갔다 「맹구시리즈」나 「만화일기 시리즈」를 보았다 하면 당장 그것을 사달라고 졸라댄다. 문방구점을 들르면 온통 만화영화 주인공 그림이 그려진 장난감으로 채워져 있다. 후기산업사회의 병적 징후들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오늘날 우리 아이들은 집안의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하고 물질적 풍요로움을 만끽하며 미래에 대한 웅대한 꿈보다 일상의 세부사항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 꿈을 잃은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다. 일상속으로 파고드는 대중매체, 광고, 전자오락 등 이른바 대중들의 오락을 위한 대중문화가 동화문학이 그동안 누렸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문학도 모방과 유행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달라진 시대환경 속에서 그들이 두고두고 새겨 읽어야 할 창작동화의 고전은 이제 사라졌다. 대중적 인기를 누리며 눈에 잘 띄는 대형서점 진열대에 즐비한 인기있는 책들은, 아동교양물이란 이름의 비문학적이고

반문학적인 독서물이 대부분이다. 정말 마해송, 이원수, 강소천 등과 같은 아동문학을 대표하는 고전적인 작가의 출현이나 권정생의 「몽실언니」와 같은 한 시대를 대표할만한 화제작의 출현도 기대하기 힘든 시대가 되고 말았다. 다만 순수창작동화로서 대중적 인기를 누리며 서점 한 쪽 진열대에 얼굴을 내밀고 있는 정채봉의 창작동화에서나마 그 위안을 찾아야 할 따름이다. 그만큼 모방과 유행이란 것은 어느 특정층의 전용물이 아니기 때문에 보편적 확산과 막강한 침투의 힘을 갖고 있는 것이다. 대신 아이들은 손쉽게 접하는 대중적인 문화를 편식함으로써 문학적 정서에 대한 허기를 가져왔다. 요즘, 아이들의 시선을 끌어당길 만한 창작동화의 출현이 그래서 더욱 기대되는 것이다.

분명 창작동화의 문학적 전략은 전과 같을 수만은 없다. 그러나 근엄하기만 한 일부동화작가들은, 진정한 문학인은 자신의 내부로부터 울려오는 명령 외에는 누구의 비위도 맞추지 않는다며, 자기의 고지식한 의지대로 동화의 세계에 심취되어 있는 느낌이다. 더군다나 근엄한 동화작가들은 독자의 호기에 대해 생각하는 노력 자체를 비문학적인 것으로 치부해 버리고 만다. 그러는 사이에 창작동화가, 문학적인 것보다 비문학적인 것에 더 큰 호기심을 갖는 어린이들에게는 무용의 장물로까지 여김을 받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 한 예로 최근에 서울의 대형서점에서 집계한 어린이도서 베스트셀러의 목록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베스트 10에 올라선 창작동화는 한 권도 찾아볼 수 없고 대개의 경우 논리물, 추리물, 명랑소년소설물 등 비문학적인 도서들이 그 자리를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을 두고 근엄한 동화작가들까지 창작하는 일에 소홀히 하고 새로운 소재 발굴에 게을리 하면서 상업주의와 결탁해 비문학적인 요소를 끌어들이었다는 비난을 함께 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처럼 된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우리 동화작가들이 숫적으로 열세이거나 혹은 그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바로 전문성의 결여에서 온 결과이다.

### 전문성 무시한 채 이뤄지는 '장르의 월경'

현재 아동문학가의 수는 700명선을 넘는다. 그 중 동화작가가 가장 많아 2/3나 차지한다. 그렇게 동화작가의 수가 많은 이유는 좀더 유

별나다. 먼저 아동잡지들의 비정상적인 등용관문을 들 수 있다. 유일한 신인 배출창구였던 아동문학지들이 신인발굴을 무분별하게 남발해 온 관행에서이다. 한때 문학단체의 경쟁관계로 문학상공모에서의 가작 작가도 단체에 가입시켜 기성대우를 해 준 적이 있었다. 분파되어 문학단체가 난립할 때 세를 불러 단체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 그들을 끌어들이려 했던 탓이다. 그러니 자연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다음에는 아동문학가라는 통칭의 문제에서이다. 성인문학은 장르에 대한 저마다의 고도화된 전문성이 있어 시인과 소설가의 명칭 구별이 명확하다. 그 구별은 특별한 재능이나 노력이 없이는 아예 장르의 월경이란 예상도 못할 형편이다. 자신이 한번 인정받은 장르에서 다른 장르로의 월경을 원할 경우에는 다시 등단 관문에 제도전해 정당하게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아동문학계에서는 아동문학 사정을 잘 모르는 출판사나 잡지사 편집인들이 동시인과 동화작가의 명칭을 구별 못하고 아동문학가라는 통칭을 편의대로 사용해 왔고, 그동안 작가들도 그런 호칭 사용에 길들여졌다. 아동문학가란 통칭명은 개별장르에 대한 전문성을 둔화시킨 원인이 되었고, 동시에서 동화창작으로 각별한 수련을 거치지 않고 거리낌 없이 자의적으로 넘나드는 월경행위를 묵인해 준 셈이 되었다. 동시인이나 동화작가는 얼마간 문단 연륜만 쌓이면 으레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은근히 자랑삼기도 한다. 이같은 월경의 통용이 한 주부의 지적처럼 작가를 배출해내는 공인된 제도에서조차 용인되는 무법의 작태까지 연출하게 되었으니 실로 심각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 외에도 일간지의 신춘문예에서 동시보다 창작동화를 선호할 뿐 아니라 동화작가에 대한 물질적·지위적 우대 문제가 부가되었으니 당연히 동시인보다 동화작가의 수가 유별나게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

그 유별나게 많은 동화작가들이 1993년 한 해 동안 아동잡지, 아동신문, 단체 기관지, 지방문화회지를 비롯하여 소수의 성인 문예지 등에 발표한 동화와 소년소설은 통털어 약 600여편에 달한다. 월 평균 50편이란 적지 않은 작품 발표량에 발표 작가수는 200여명을 조금 웃돈다. 그 중 창작동화를 5편이상 발표한 작

가는 강정규, 곽중분, 김병규, 김여울, 김자환, 박성배, 배용길, 소중애, 손준익, 심후섭, 윤사섭, 이윤희, 이준연, 임신행, 장영주, 정진채, 최시병 등 10여명선에 그칠 뿐 태반이 한 두어 편을 발표하며 작가로서의 체면치레나 하고 있는 형편이다. 거기에는 한정된 발표지면과 청탁을 가리는 연유도 있겠지만 아동문예지들이 본지 출신작가를 우대하는 배타적인 면도 강해 그나마 한 두 편의 발표지면을 얻은 작가는 행운에 속한다.

그런 속에서도 꾸준히 작품집을 간행하며 문학적 깊이를 모색해 온 동화작가들은 다음과 같다. 강정규, 김병규, 김재창, 김학선, 류근원, 박상재, 박성배, 배익천, 손준익, 송재찬, 신동일, 심후섭, 윤사섭, 윤수천, 이동렬, 이상배, 이영호, 장문식, 정진채, 정채봉, 조대현, 최영재 등 이미 확고한 자기세계를 구축한 중견작가군과 서하원, 이윤희, 최은섭, 홍기 등 새로 부상하는 신예작가군이 그들이다. 특히 근래 주목할 만한 것은 강원희, 강추애, 김은숙, 김은희, 노경심, 박경선, 박숙희, 소중애, 손수자, 원유순, 이규희, 이금이, 이윤희, 이인순, 이혜원, 임옥순, 전경련, 정영애 등 여류문인들이 활발한 활동을 보인 점이다. 여류작가들이 자신의 위치를 확고하게 다질 수 있었던 것은 주로 남성 문인들이 향토성과 역사성, 사회고발을 담은 거시담론 쪽으로 추구하던 자리에 여류작가들이 아이들의 또다른 사회를 관찰하며 자유분방함과 다양성을 구체화하는 미시담론으로 창작동화의 다른 면을 메워주었기 때문이다. 즉 근엄한 교사와 엄격한 아버지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관찰하고 다정하게 보살피는 어머니의 입장에 어린독자들이 더 관심을 보였다든 뜻일 것이다. 요즘 아이들이 미래의 꿈보다 일상에 얽힌 세부사항들을 보다 중요시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할 터이다.

### 성인작가의 동화창작 대열 합세

그러나 오늘날 우리 아이들의 건전한 독서 문화는 출판자본의 거대화과 발행 도서의 엄청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내적인 질과 독자의 반응도를 따져 볼 때 일종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한 바이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도 자신의 분야에서 일정한 문학적 성과를 거두고 있던 시인·소설가들이 동화작가들의 고유한 몫이라고 굳게 믿어 왔던 창작

동화의 대열에 합세하고 나섰다. 순수창작물의 대부분이 아이들에게 외면당해 온 시간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인작가들이 아동창작물에 뛰어든 현상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지 모른다. 문학적 가치, 그리고 재미성과 더불어 교육적 효용성을 지니면서 아동의 현실과 정서에 맞는 창작동화의 출현을 고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성인작가들의 참여는 동화문학의 확장이란 면에서 바람직한 일일 수 있다. 창작동화를 별개의 장르로 고착화 하다가 한 동화문학계에 시인·소설가들의 참여는 신선한 자극과 발전을 위한 반성의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일반 문학가들이 아동물을 쓴 전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태준, 이상에서 최인호에 이르기까지 많은 작가들이 동화와 소년소설을 창작했다. 그러나 오늘날같이 본격적으로 출판사가 나서서 창작집을 기획하고 간행하는 예는 90년대 들어선 최근의 일이다. 여기에는 믿음사에서 창간한 「민음동화」지의 영향이 매우 컸다. 보통 아동문학지가 아동문학가와 그들이 소속해 있는 단체와의 관련 하에 시작되었다면 「민음동화」지의 편집체제나 편집방향은 처음부터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출발하였다. 「민음동화」는 “어린이들에게 무한한 창조력을 일깨우고 표출시키는 데 어린이를 자녀로 가진 부모나 교사, 아동문학을 하는 사람들만의 장이 될 수 없음”을 선언하고, 기획위원과 필진도 시인, 소설가, 아동심리학자, 문학평론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여기에 처음 발표되었던 시인·소설가들의 창작동화가 출판사의 요구에 따라 출간되면서 성인작가들이 동화 창작에의 붐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시인 곽재구의 「아기참새 찌꾸」(국민서관)가 선을 보인 이후 시인 정호승의 「에밀레종의 슬픔」(한양출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간행하였다.

‘초원의 개척자’ 아기참새 ‘찌꾸’의 성장과정을 통해 새로운 세계에 대한 탐구정신과 더불어 사랑과 용기의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는 곽재구의 「아기참새 찌꾸」는 출판 한 달여만에 대형서점 집계 베스트셀러 10위권 안에 진입하여 화제를 뿌리기도 하였다. 그 책은 작가의 싸인 북 판매도 결들인 전략 판매와 성인작가들의 출판붐을 일으키는데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창작동화이다.

또한 최근에 출간된 정호승의 「에밀레종의

슬픔」은 일제하 일본인에 의해 일본으로 밀반출되다 동해에 버려진 에밀레종을 영희의 가족과 마을사람들의 노력으로 경주로 되돌려지게 된다는 단순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종의 제작과정에서 어린 딸을 끓는 물 속에 집어넣었다는 비극적인 전설이 베개로 환치된다. 곧 종에 담긴 전설과 일제시대라는 이중의 비극적 상징들로 그려진 에밀레종의 슬픔을 작가의 재창조 과정을 거쳐 동화다운 밝은 이미지로 바꾸어 놓았다는 뜻이다. 이처럼 이들 작품은 팬티지가 허락된 망상이 아닌, 세계를 보고 그 세계를 넘어선 다른 것까지를 보려는 폭넓은 의식의 작용임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동화다운 요소를 지닌다. 거기에는 마스크의 적잖은 힘을 입어 독자에게 알려지는 데도 성공한 작품들이다. 이제는 성인작가가 동화를 쓰면 무엇이든 대단한 작품을 쓴 것처럼 다루어 보도하는 유아적 태도는 시정되어야 할 일이다. 그만큼 동화의 창작은 우리 문학계에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 정실 등단과 문단정치도 문제

사실 창작동화는 문학 수용자의 특수한 삶의 조건과 미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고려하여 필연성에 의해 생겨난 문학양식이다. 성인문학가들이 창작동화에 관심을 갖는 것이 어떤 필연성에 의한 것이라면, 동화작가들도 나름대로 주어진 필연성에 따라 청소년 독자층에까지 깊은 관심을 가져주어야만 한다. 바로 성장소설이라는 정채봉의 「초승달과 밤배」(한국예술사)가 그 좋은 본보기이다. 동화작가들이 독자층을 청소년에게까지 끌어올려 장르 영역을 확대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은 동화문학, 더 나아가 한국문학의 장르를 위해 앞으로 동화작가에게 부과될 과제 중의 하나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의욕있게 출발한 신예작가들을 지속적으로 키워내는 일도 동화문학의 발전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문단 안에 병리적 현상으로 지배해 왔던 문단정치의 철폐와 정실에 얽힌 등단관문의 철저한 규제가 시급한 실정이다. 자신의 잡지나 단체를 통해서 나온 별볼일 없는 신인작가들만 서로 감싸준다면 아동문학은 제 울타리 안에서만 자족하는 문학으로 전락하고 전체 아동문학의 존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에게도 똑같

은 악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장래를 어둡게 만드는 독소일 뿐이다. 동화작가는 우리의 장래를 소중히 가꾼다는 소명의식으로 창작하고, 또 서로의 공동체적 사명감으로 참신한 신인들을 발굴하고 키워내야 한다.

### 개혁의 출발선에 서 있는 아동문학

그러나 90년대 들면서 아동문학계에 고무적인 현상도 보였다. 그것은 3분파되어 왔던 아동문학 단체가 일부 통합하여 비생산적인 파벌경쟁이 지양되면서 동일한 등단지의 출신자들이나 문학상 수상자들을 중심으로 소집단 그룹의 문학적 활동이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아동문학가들의 공동 권익옹호를 대표하는 하나의 단체 안에서 작가들의 동료의식과 문학적 열정을 보다 긴밀하게 다지고자 하는 문학적 구성력에 대한 욕구가 소집단활동으로 구체화되었다는 뜻이다. 또 하나는 아동문학을 번두리 문학 쪽으로 생각해 왔던 그간의 사회인식에서 이제는 출판사들이 새로운 아동물을 다루어 기획하고, 시인·소설가들이 아동문학에 뛰어든 만큼 일반적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동화문학의 발전을 위해서 한 가지 덧붙인다면 비평이 횡포를 부려서도 안 되지만, 동화작가 자신의 작품에 대한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여서는 자세의 절실함이다. 일반적으로 문학의 역사는 비평의 역사와 더불어 병행되어 왔다. 문학비평은 독자와 작품 사이에 매개역할을 감당하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왔다. 근엄한 자세로 구겨진 자존심을 세워온 아동문학이 우리사회의 고조되는 관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리 걸음마를 해야 하는 정체현상과 아직도 작가의 친일행위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도 다 이 때문이다. 비평을 겸허하게 수렴하려는 자세, 이것이 바로 어린이문학을 담당하는 작가의 양식이며 전문성에 대한 의식수준이다. 또한 이런 자세는 아동문학가들에게 직면한 개혁의 출발점이기도 할 터이다.